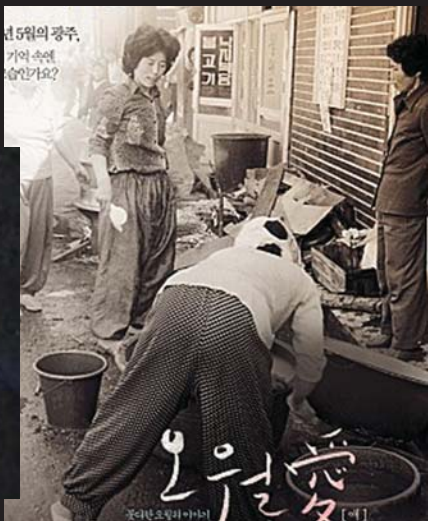
영화가 시작된다 오월의 진실을 본다



17일 '5월 영화 기획전', 다큐영화 '김군' 특별상영·공연·토론

'5·18 특별상영회' 광주독립영화관 등 전국 5곳서 12편 상영

'5·18을 기억하라, 영화로 알리는 오월 광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탁용석)은 '광주 브랜드 영화 제작지원 사업' 일환으로 '5월 영화 기획전과 전국 특별상영회'를 개최한다.

17일 오후 3시 광주CGI센터에서 열리는 5월 영화 기획전은 5·18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감독 강상우)'의 특별 상영과 함께 공연, 패널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오동진 영화평론가의 사회로 진행하며 영화 '김군'의 강상우 감독과 역사학자 김권호 연구원 등이 참석해 5·18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뮤지션 옌과 강명진의 공연도 펼쳐진다.

영화 '김군'은 80년 5월 당시 '북한 특수 공작원'으로 지목됐던 시민군이 평범한 광주시민이었다는 사실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오는 23일 전국 개봉한다. 이 작품은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됐으며 제44회 서울독립영화제 등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하는 5·18전국특별상영회는 광주독립영화관을 비롯해 서울(아리랑시네센터), 부산(인디플러스 영화의전당), 천안(인디플러스), 부천(판타스틱큐브) 등 5개 지역에서 5·18을 주제로 한 총 12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광주독립영화관(관장 윤수안)은 자체 기획으로 '5·18 39주기 특별기획전'에서 총 7편의 '오월' 작품을 상영한다. 광주지역 방송국의 4편의 작품과 독일인 기자로 광주를 목격했던 위르겐 힌츠페터의 이야기인 '5·18 힌츠페터 스토리', 계엄군 장교의 양심선언을 극화한 이정국 감독의 '반성', 5·18을 춤으로 표현한 오재형 감독의 '봄날'이다.

광주MBC의 작품인 '시민군 윤상원'과 '두 개의 일기'는 윤상원 열사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민군 윤상원'은 1980년 5월 27일 새벽 도청을 지키다 산화한 윤상원 열사의 삶과 철학을 다룬 다큐멘터리 드라마로, 고(故)박효선씨는 들불야학과 항쟁지도부의 동지이기도 했던 윤상원 역을 맡아 열연하고 있다.

'두 개의 일기'는 70년대 노동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전태일 열사와 80년대 민주화운동의 밀알이 되었던 윤상원 열사의 일기를 바탕으로 두 열사의 삶을 추적한다.

광주KBS가 제작한 '그날, 5·27'은 1980년 5월 27일의 도청 상황을 추적하고 있으며 '두 사람의 기억'은 고(故) 박효선과 고(故)김영철의 1998년 사망 직전 모습과 이들과 친밀한 사람들인 연극인 신동호, 김영철의 막내딸 김연우가 현재의 시점에서 두 사람을 기억하는 것을 따라가는 다큐멘터리다.

이정국감독의 '반성'은 5·18당시 계엄군 장교의 반성을 극화한 단편영화와 이를 촬영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각자가 경험한 5·18에 대한 인터뷰로 구성돼 있으며 지만원씨로부터 북한군으로 지목받은 5·18 당시 도청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을 만날 수 있다.

'봄날'은 5·18을 무용으로 해석한 작품이다. 영화를 연출한 오재형감독은 작품을 촬영하기에 앞서 현대무용가 4명에게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선물해주며, 소설을 읽고 그 정서를 몸짓으로 표현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밖에도, 광주독립영화관은 '독립영화 반짝반짝전'에서 김경자감독의 오월 여성들의 이야기인 '외롭고 높고 쓸쓸한'을 상영한다. 그밖에 서울 아리랑센터에서는 '5·18 힌츠페터 스토리', '택시운전사', '오월愛'를 상영하며 부산 인디플러스 영화의 전당에서는 '꽃잎', '박하사탕', '김군' 등을 상영한다.

문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062-610-2464, 광주독립영화관 062-222-189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수영대회 D-50일 기념 50인 작가 초대전'

20~31일 진한미술관

광주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진한미술관(관장 김상덕)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D-50일 기념 대한민국 50인 작가 초대전'을 연다.

수영대회 캐치프레이즈인 '평화의 물결 속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서는 서양화, 한국화, 수채화, 민화, 공예, 사진, 시각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작가들은 한라산·월출산·히말라야 등 아름다운 자연의 사계절 풍경, 현대를 살아가는 인물군상, 모란·해바라기·장미·목련·소나무 등 꽃과 나무를 소재로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펼쳐보인다. 또 대리석·청동·알루미늄·목재·황토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조각 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에는 미술관 명예관장을 맡고 있는 조각가 정윤태 작가를 비롯해 강남구·김성숙·노은희·박상호·박유자·신동언·위재환·이근표·정예금·정춘표·정용규·정성복·조윤성·채종기·하철경 등 광주와 전남북 작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참여했다.

박동인 작 '축일 11-7'

오지호미술상을 수상한 송용 작가는 여성의 인체미를 강조한 신작 '영일'을 선보이며 광주미술상 이사장을 역임한 배동환 작가는 추상적인 요소가 강조된 '달과 소나무'를 전시한다. 또 주미희 작가는 가는 철사와 색실을 소재로 고뇌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한 '공간 속의 이야기'를 내걸었으며 고현주 작가는 수채화의 그윽한 번짐 효과가 돋보이는 '집으로…'를 선보인다.

전시 초대 일시는 20일 오후 5시다. 문의 062-222-0072.

/김미은 기자 mekim@

국립발레단 '호이 랑' 여수서 세계 첫 공연

17~18일 예울마루 대극장

국립발레단이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18일 오후 5시 2회에 걸쳐 여수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창작발레 '호이 랑'을 세계 초연으로 선보인다.

2009년 '왕자 호동'과 2017년 '허난설헌-수월경화'에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이는 창작 발레 시리즈인 이번 공연은 국립발레단이 최초로 지역에서 초연하는 공연이다.

대한제국 당시 언론인 장지연이 엮은 열전 '일사유사'에 등장하는 여성 '부랑'의 실화를 발레극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녹음된 연주가 아닌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무대에 올린다.

아버지, 오빠와 함께 산 속을 뛰놀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랑은 전쟁으로 군대에 징집당한 오빠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된다. 아버지마저도 징집 명령을 받게 되자 랑은 그를 대신해 남장을 하고 입대하기로 결심한다. 사령관 정의 보살핌과 자신의 의지로 랑의 입지는 나날이 커졌으나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군인 반은 반란을 도모한다. 이에 맞서던 랑은 여자임이 밝혀지고 군에서 쫓겨나게 되는 처지에 놓인다.

국립발레단 단장 강수진 감독이 예술감독을 맡고 연극 '오이디푸스'와 창작가무극 '나빌레라' 등을 연출한 서재형이 연출을 담당했다.

강수진 예술감독 박슬기 신승원

지난 2017년 제11회 차범석 희곡상 뮤지컬대본 부문에서 입상한 한아름 작가가 대본을 썼으며 '요동치다', '빛을 가르다', '허난설헌-수월경화' 등을 맡았던 강효형이 안무를 맡아 수석무용수 박슬기, 신승원, 이재우, 솔리스트 정영재, 허서명, 변성완이 호흡을 맞췄다.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의 1544-7669.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모네·드가·르누아르

'인문지행' 19일 영화의집

모네 '정원의 여인'

매월 한 차례 시민들과 함께 세계 미술관들의 명화를 감상하는 사단법인 '인문지행'의 '문화예술기획' 5월 행사가 19일 오후 2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명화를 감상한다. '겨울 궁전'으로 알려진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영국 대영 박물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힌다.

이번 강의는 로코코 미술 창시자인 장 앙트완 와토와 인상주의 회화를 주도한 클로드 모네, 그리고 인상주의의 대표화가 드가와 르누아르의 작품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주요 작품은 와토의 '변덕스러운 여인', 들라크루아의 '사자사냥', 모네의 '정원의 여인', '양귀비가 피어있는 들판', 드가의 '목욕 후', 르누아르의 '장 마리의 초상화' 등이다.

기획과 진행은 '인문지행' 대표 심옥숙 박사가 맡고 있으며, 참가비는 없다.

인문지행: http://cafe.daum.net/h-arete. 문의 010-5205-5668, 062-229-0687.

/김미은 기자 mekim@